

동계체전 전북 위상 높인 주인공 한자리

도체육회, 해단식·입상 격려회 개최
우승배 봉납·입상선수 격려 등 진행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전북 체육의 위상을 드높인 주인공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는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 해단식 및 입상 격려회'를 전북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입상격려회는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동계종목 선수 주변확대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선수와 지도자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 전북 선수단은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과 강원 등에서 열린 동계체전에 선수와 임원 등 324명이 출전했고 502.5점(금 21개·은 21개·동 21개)을 득점해 21년 연속 종합 4위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이날 행사는 최형원 도 체육회 사무처장의 대회 결과보고를 시작으로 우승배 봉납(바이애슬론), 입상선수 격려 등의 순으로 진행됐

다. 또 상위 입상을 한 선수와 지도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됐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치사를 통해 "전북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준 선수와 지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여러분들의 선전은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됐고, 전북인의 자존의식을 높일 수 있는 대도약의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동계체전은 21년 연속 종합4위라는 대기록을 이어나가며 막을 내렸다"며 "이제 오는 5월 전북에서 열리는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도 성공적으로 치르자"고 강조했다. 한편 대회 4관왕을 차지한 무주고의 최윤아 선수는 전북 선수로는 최초로 동계체전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장은성 기자



6일 전북체육회관에서 진행된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 해단식 및 입상 격려회'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4관왕을 달성한 최윤아(무주고, 바이애슬론)선수를 격려하고 있다.

여자축구, 4개국 대회 뉴질랜드전 2-0 승리

윤덕여호가 호주 4개국 친선대회 최종전에서 뉴질랜드를 꺾으면서 2승1패로 대회를 마쳤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여자대표팀은 6일 호주 멜버른의 AAMI파크에서 열린 뉴질랜드와의 대회 최종 3차전에서 지소연(첼시 레이디스)과 문미라(수원도시공사)의 밀레이 골을 앞세워 2-0으로 이겼다. 아르헨티나와의 1차전에서 5-0 승리, 호주와의 2차전에서 1-4로 패한 한국은 2승1패로 대회를 마감했다. 간판 공격수 지소연은 이번 대회 3경기에서 모두 골맛을 보며 4골을 기록했다. 전반은 답답한 양상이었다. 뉴질랜드 진영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만큼 주도권을 잡고, 공격적으로 임했지만 골이 터지지 않았다. 윤 감독의 교체 카드가 적중했다. 후반 13분 지소연과 손화연(창녕), 20분 문미라를 투입하면서 분위기를 바꿨다. 지소연이 균형을 깬다. 후반 29분 문미라의 패스를 받은 뒤, 침착한 드리블로 수비를 따돌리고 골을 터뜨렸다. 후반 42분에는 문미라가 승부에 마침표를 찍는 썩어골을 기록했다.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나란히 골맛을 봤다. 7일 귀국하는 윤덕여호는 다음 달 평가전 등을 통해 2019 프랑스 여자월드컵을 준비한다. 월드컵은 6월7일 개막한다. /뉴스

'올 시즌 출격 준비 끝'

전북지역의 유일한 실업팀인 전주시민축구단이 올 시즌 출격 준비를 마치고 K3리그(베이직) 우승에 도전한다. 전주시민축구단은 6일 내셔널리그와 대학출신 11명과 성인무대 첫 발을 내딛는 신인 4명 등 모두 15명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전주축구단은 선수 영입을 통해 공격과 수비의 조직력을 강화했다. 최영광(DF·29)은 천안시청과 경주한수원, 창원시청, 강원FC 등 내셔널리그와 프로에서 경력이 많고 185cm의 키와 72kg의 몸무게로 신체조건이 좋아 헤딩이 뛰어나며, 넓은 시야로 공·수를 조절하는 능력을 가졌다. 공격수인 김재관(FW·23)은 배재대를 졸업하고 입단했으며, 양발을 이용한 드리블과 스피드 힘이 장점이며, 박주성

(FW·23)은 전주대 출신으로 177cm의 키에 몸무게 73kg으로 슈팅과 프리킥이 능력이 뛰어나다. 중원대를 거쳐 입단한 이정우(FW·23)는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저돌적인 돌파가 장점으로 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공격수 삼건희(21)는 지난 2017년 스페인 헤타페에서 활약했으며, 원광대를 졸업하고 입단한 공격수인 박기표(FW·23) 등도 가세했다. 이밖에 성인무대에 첫 발을 내딛는 신인은 공격에 전주시민축구단 U-18에서 올라온 김민기(전주고·3년)와 송실고를 졸업한 서경진(19), 수비에 광명공고를 졸업한 용태경(19)과 단풍FC에서 안재형(19)이 입단했다. 한편 전주시민축구단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전주대학교 운동장에서 동신대와 FA컵 1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뉴스

전주시민축구단, K3리그 우승 도전
대학출신 11·신인 4 등 15명 영입
10일 동신대와 FA컵 1라운드 경기

토트넘, UEFA 챔스 8강 진출... 도르트문트에 1-0 승리

손흥민(토트넘)의 소속팀 토트넘이 2018~2019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8강에 진출했다. 8년 만이다. 손흥민은 6일 오전 5시(한국시간) 독일 도르트문트의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열린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와의 2018~2019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선발 출전해 후반 26분까지 71분을 소화하며 팀 승리에 일조했다. 해리 케인, 크리스티안 에릭센과 공격 라인을 형성한 손흥민은 도르트문트의 강한 공세를 버티며 역습으로 상대를 위협했다. 공격포인트를 올리진 못했지만 적극적인 압박과 틈새 공략으로 승리에 공헌했다. 토트넘은 후반 4분에 터진 케인의 결승골을 잘 지켜 1-0으로 승리했다. 1차전에서 3-0 완승을 거둔 토트넘은 1·2차전 합계 4-0, 2연승



으로 수월하게 8강에 진출했다.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서 8강에 오른 건 2010~2011시즌 이후 8시즌 만이다. 당시 8강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를 만나 탈락했다. 토트넘은 9일 자정 사우샘프턴과 리그 30라운드를 치른다. /뉴스

KBO, 유소년 야구 장학금 지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유소년 야구 장학금을 지원한다. 야구발전기금을 활용, 지난해 처음 시작한 사회공헌사업이다. KBO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초등학생 29명,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20명 등 총 79명의 소외계층 야구 꿈나무에게 4억5240만원의 지원했다. 올해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각 30명, 고등학생 20명 등 최대 80명을 선정해 매월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70만원씩 총 4억5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에 등록된 초·중·고 야구선수 중 지난해부터 KBSA 또는 한국리틀야구연맹에 선수로 등록해 활동하고 있는 선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초등학생의 경우 4학년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다. 야구장학금 수혜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장애인(1~3급 순) 가정, 다자녀(18세 이하의 3자녀 이상) 가정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기타 생활형편, 야구성적, 학업성취도, 인성 및 교우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정하게 된다. 야구장학금 지원 신청 기간은 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이며 우편접수만 가능하다. 신청양식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O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